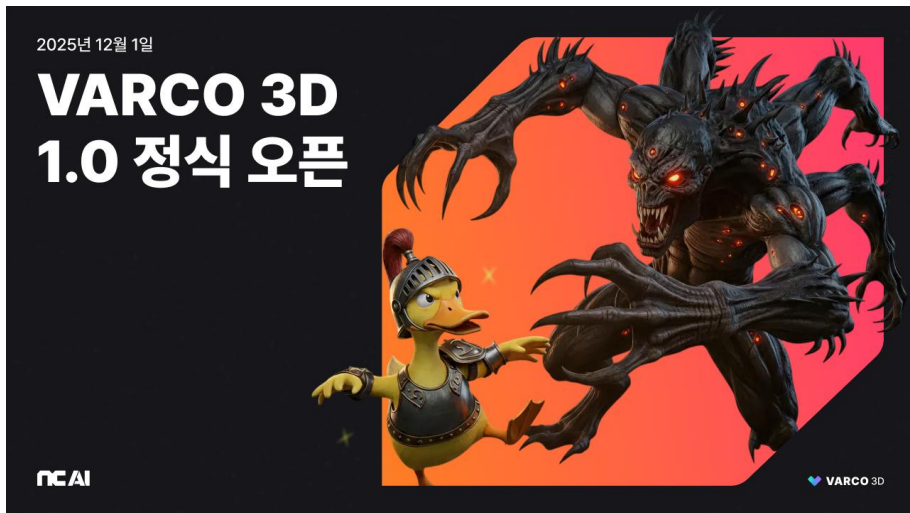




# Interview with 김근교, 글로벌사업실 실장 at NC AI



**김근교**

글로벌사업실장

NC AI

출처: [nc-ai.com/ko](http://nc-ai.com/ko)

이번 인터뷰는 NC AI의 글로벌사업실 김근교 실장과 함께했다. 그는 SK텔레콤, 그리고 애플 을 거쳐,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역임하는 등, IT와 AI 분야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꿰뚫는 폭넓은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NC AI의 글로벌 사업 전략을 총괄하며 NC AI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 Summary

게임산업에서 AI기술은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게임의 핵심 콘텐츠와 플레이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게임기업들은 축적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며, 한국이 AI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게임 엔진을 넘어 K-AI로의 도약'을 주제로, NC AI가 산업 AI 허브로 확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게임 개발에서 축적된 AI 경험, K-AI의 미래상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Q. 먼저 NC AI와 실장님께서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NC AI는 엔씨소프트가 14년 이상 축적한 AI 연구 역량을 집대성해 설립한 AI 전문 자회사로, 프롬스크래치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인 'VARCO(바르코)'를 구축, 국내 최초로 AW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5대기업으로 선정,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 게임 개발 공정을 혁신하는 생성형 AI 툴, 실사 수준의 디지털 휴먼, 그리고 실세계를 이해하는 3D 월드 모델 기술 등을 통해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 항공 등 전 산업 분야에 실용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저는 글로벌사업실장으로서 NC AI의 원천 기술을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춰 상품화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W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물론 제조, 국방, 유통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술을 토대로 로보틱스·스마트시티 등 이종 산업으로 솔루션 공급을 확장하는 B2B 세일즈를 이끌고 있구요. 아울러 각국 규제와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GTM(Go-to-Market) 전략을 수립해 기술 조직의 고도화된 기술력이 실험실을 넘어 AI시장에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도록 이끄는 핵심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Q. NC AI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AI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게임 AI 연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가 전략 AI 프로젝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기술 기반 연구소에서 산업 AI 허브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NC AI의 출발점은 "게임 속 세계를 더 살아있게 만들자"였습니다. AI가 플레이어의 감정, 맥락,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엔씨의 AI 연구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14년간 축적된 기술은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게임 세계는 현실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수백만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 수천만 프레임의 그래픽, 실시간 언어·음성 및 3D 생성기술 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그 역량이 게임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창의와 효율을 혁신하는 'AI 허브'로 진화한 것입니다.

**Q. NC AI가 오랜 기간 MMORPG 등 복잡하고 동적인 게임 환경에서 축적한 실시간 처리, 강화학습 기반 AI 경험은 현재의 산업 AI 모델 개발에 어떤 결정적인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NC AI가 MMORPG 등 복잡한 게임 환경에서 쌓아온 실시간 처리와 강화학습 경험은, 현실 산업 AI 특히 제조와 로봇 분야에 결정적인 기술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 핵심은 NC AI의 바르코 3D 기술에 있습니다. 바르코 3D는 텍스트나 이미지 입력만으로 현실과 거의 유사한 물리 기반 3D 공간과 오브젝트를 즉각 생성하는 AI 엔진입니다. MMORPG에서 수천 개 객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환경을 처리해온 경험이, 산업 현장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제조 공장, 로봇 작업장 등 물리적 공간을 고도화된 3D 가상 환경으로 재현, AI가 이 공간에서 무수한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을 통해 자율학습과 행동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NC AI는 게임에서 단련한 실시간 강화학습과 3D 생성 기술로, 현실 산업에 최적화된 '가상과 현실을 잇는 지능형 디지털 트윈'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적 선도는 NC AI가 산업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가장 결정적인 기반이며, 피지컬 AI의 미래를 주도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NC AI의 바르코 3D는 MMORPG AI를 넘어 산업 AI로 확장된 독보적인 '디지털 트윈 엔진'이 될 것입니다.

**Q. NC AI는 국가 전략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기술 총괄 리더이자 AI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기술 독립과 산업 실증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C AI는 어떠한 노력을 진행 중인가요?**

A. NC AI는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으로서 54개 기관의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방어적인 모델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을 글로벌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산업 특화 AI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 최고가 곧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는 제조, 문화, 유통, 국방 등 분야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실제 활용가능한 산업 실증 AI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AI 주권은 방어가 아니라 주도입니다. 우리는 기술 표준을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대한민국 AI의 리더십을 세우고자 합니다.

**Q. NC AI는 200B급 LLM 개발과 동시에 VARGO Vision 2.0에 집중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효율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술 전략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 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도록 구상하고 계신가요?**

A. AI 경쟁의 흐름은 '크게 만들기'에서 '영리하게 활용하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규모의 모델을 통해 인지력의 한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활용에 용이한 멀티모달 확산모델 구축을 통해 엣지 단말이나 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량화를 추구합니다. 즉, 고성능 모델은 연구와 창작에, 경량 모델은 배포와 서비스에 최적화해 두 모델이 서로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원화 구조는 '규모의 지능'과 '현장의 효율'을 동시에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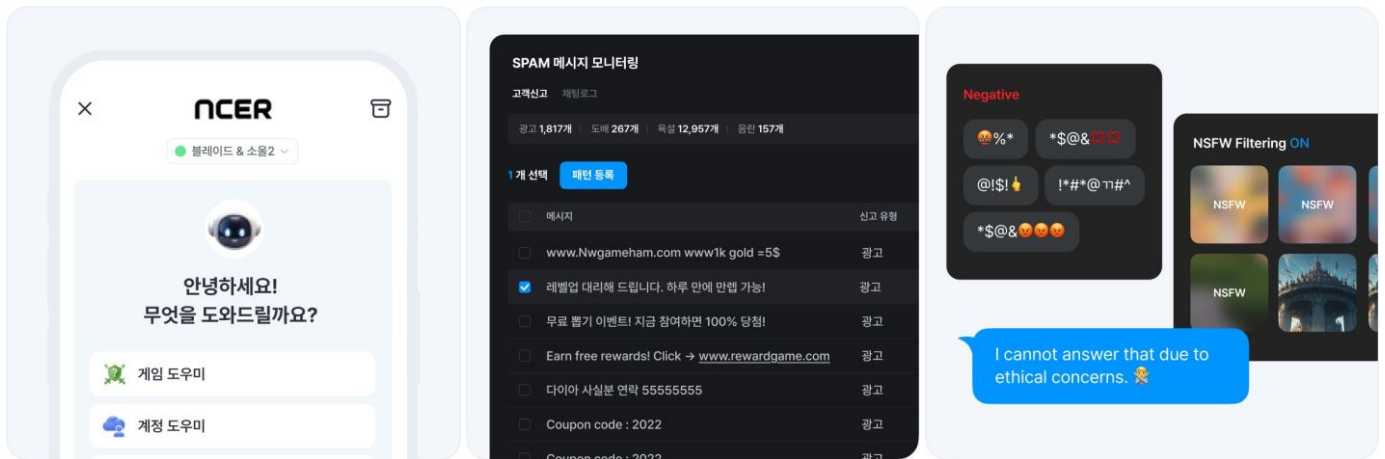
**Q. 지난 7월, VARGO Vision 2.0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신 후 열흘 만에 다운로드 1만 건을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전략을 택한 핵심적인 이유와, NC AI가 국산 AI 모델의 글로벌 확산 및 국내외 개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시나요?**

A. AI는 혼자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가 바르코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유는 '개방형 생태계'에서 빠른 혁신이 일어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바르코 비전 2.0도오픈 이후 열흘 만에 다운로드 1만 건을 넘긴 건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생성형 AI 모델이 글로벌 개발 표준의 일부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우리의 코드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지난 9월, NC AI는 엔씨소프트의 고객 상담 챗봇 서비스'NCER'에 자체 개발한 AI 안전성 기술 'Safeguard'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안전성 표준이 요구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AI 보안 및 안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NC AI는 AI 안전성 표준 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AI의 무분별한 확산 속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NC AI는 지난 9월, 엔씨소프트의 고객 서비스 'NCER'에 자체 안전성 필터 'Safeguard'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대화 중 부적절한 콘텐츠나 개인 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합니다. AI 안전은 단순히 규제 대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창작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델 학습부터 출력까지 일관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국제기구와 연계해 'AI 생성물 안전 표준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왼쪽부터) VARCO Chatbot, VARCO Gentle Words, VARCO Safety



출처: nc-ai.com/ko

**Q. 게임 산업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는 UGC(User Generated Content)와 관련하여, NC AI 기술이 플레이어들이 더욱 쉽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어떤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A. UGC는 플레이어가 단순한 소비자에서 '공동 창작자'로 변모하는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NC AI는 이미지·음성·3D 생성 기술을 결합해 플레이어가 복잡한 툴 없이도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르코 3D 모델을 활용하면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모델링하거나, 바르코 보이스의 TTS를 통해 성우급 연기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Everyone can be a creator'라는 NC AI의 비전이 바로 UGC 혁신의 핵심입니다.

**Q. 디지털 아바타가 플레이어의 개성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C AI가 연구 중인 모션·애니메이션 기술은 이런 아바타의 진화를 어떻게 이끌고 있으며, 메타버스나 차세대 게임 플랫폼에서 어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A. 우리가 개발 중인 바르코 보이스의 감정형 TTS와 씽크페이스는 단순히 외형을 생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결까지 표현하는 인간 중심의 인터랙션입니다. AI가 학습한 표정과 음성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저비용으로 빠르게 효율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메타버스, 가상 팬덤, 실시간 협업 공간 등 차세대 플랫폼 경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Q. 장기적으로 NC AI가 그리고 있는 AI 생태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지,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AI 기술 독립과 산업화를 이끄는 NC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A. NC AI가 그리는 미래 AI 생태계는 명확한 '버티컬 AI'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대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AI를 기반으로 피지컬AI로 확장, 각 산업 현장의 특화된 니즈에 맞춘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NC AI는 독자AI에서도 설명드렸듯 산업별 최고 파트너들과 협력해,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산업 실증 AI'를 구축, 대한민국 AI 주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방어적 자세보다는 주도적 혁신을 통해 기술 표준과 산업 규범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즉, 각 버티컬 산업 분야에서 한국 AI가 최고가 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최고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NC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NC AI는 산업 특화 AI 생태계의 중심에서, 한국형 AI 기술과 플랫폼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시키며, 산업·정부·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AX의 장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배우고 콘텐츠 산업에 도전하려는 젊은 세대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AI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루는 기술입니다. 도전하세요. 기능보다 상상력이 중요하고, 정답보다 세계관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AI는 아직 미완의 기술이지만, 그것은 곧 '함께 완성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청년들이 AI로 세계의 콘텐츠를 창조하고, 해외 파트너들이 그 혁신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AI는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상상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NC AI는 그 파트너십의 중심에서 세상과 상상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